



생활미술 전반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는 너무도 分野가 廣範圍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其中 우리 家庭生活에 關한 한토막 잘라서 생각해 보고저 합니다.

家庭이란 하나의 獨立된 社會이면서 하나의 安息處라 하겠읍니다.

이 安息處가 되어야할 家庭生活를 더욱 더 보람있고 알뜰한 곳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그 누구나가 憧憬하며 切實히 願하고 있을 것입니다.

勿論 個個人的 趣味 職業 教養等에 따라 個性은 서로 다르겠지만 無條件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마음만은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그럼 이 쉽고도 어렵게 생각되는 이 問題를 어떻게 解決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집마다 構造나 條件이 다 다르겠지만 根本적으로 共通되는 어떠한 基本常識만은 꼭 알아둘 必要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간절하고 努力해 보려고 애를 써도 基本常識이 없다면 解決하기가 힘들뿐 아니라 좋은 結果를 가져오기가 困難할 것입니다.

우선 視覺的인 느낌이 가장 重要합니다 色彩나 形態가 調和를 이루어야 되겠읍니다. 色彩調和를 이루는 要點은 配色할 때 充分히 色들의 調和에 머리를 써야 하겠

는데 色의 調和라함은 마치 音樂에 있어서의 協和音과도 같이 서로의 調和에 따라 더욱 더 아름다움이 發揮 될 수 있는 色과 色의 關係를 말하는 것입니다. 色의 世界는 音의 世界보다 더욱 複雜하기 때문에 單純히 波長의 關係만으로 調和의 法則的인 것을 云云할 수는 없읍니다.

一般的으로 調和의 原理的인 것으로는 統一感 속의 變化, 複雜한 가운데의 統一感을 가져오는 것이겠읍니다.

即 全體의 整理만 가지고는 不足한 感을 느끼기 때문에 그 속의 變化에 滋味를 살려야 되겠읍니다. 또한 變化가 너무 많아져서 複雜하게 되기 쉬운 곳에는 全體의 統一感을 가져 올수 있는 要素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調和의 一般原理를 色의 配合에 適用시켜 生覺하면 色의 調和에 對하여서도 確實한 그 무엇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或 家具를 장만할 때 여러가지 家具들이 其形態나 色彩가 서로 어울리는 것들이어야 한 房에 놓아도 더욱 서로 빛나며 調和가 되겠지만 서로가 損害를 주게되는 形態라든가 色彩를 가지고 있는 家具들은 한 房에 같이 있어서 따로 따로 獨立된 個性을 發揮하게 되므로 全體的인 調和美는 찾아 볼 수가 없게되어 무

언지 어수선하고 整理가 잘안된것 같이 보입니다. 마치 西歐人과 東洋人이 섞여 있어 있는 듯한 不調和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은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韓式 洋式 家具들이 많이 쓰이는데 房을 統一된 氣分으로 裝飾을 하려면 역시 韓式 洋式 家具를 따로 따로 區分해서 整理해 놓는 것이 無難하고 統一感이 납니다. 或 韓洋式家具를 한 房에 섞어 놓으면 그만큼 서로의 反對되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整頓하기 힘들 뿐 더러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間或 色다른 感覺을 자아내려면 特殊한 韓洋家具들은 서로 適切히 결드려 놓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好奇心이라든가 特殊한 어떤 效果를 노리는 것이겠읍니다.

洋室에 純韓國의인 家具를 일부러 결드려 놓을 수가 있지만 이것도 色 이라든가 形態의 아름다움을 잘 考慮하여 選擇을 잘 해야지 잘못 하게 되면 洗鍊된 느낌 보다도 反對되는 느낌을 줄 憂慮가 많습니다.

또한 形態에 있어서도 모가 젓거나 등 근것等 서로 느낌이 相反되는 物件들은 한 房에 마구 느러놓는 것도 生覺할 問題입니다.

예를 들어 등근型的 鏡臺가 모난 家具들과 나란히 놓여 있을때 차라리 모난 鏡臺를 한자리 차지하게 한다면 더욱 統一感을 이루게 되겠지요.

家具의 韓洋式을 이야기 한때와 같이 型態도 마찬가지로 意識의인 것이 아닌 바에야 차라리 같은 型的 家具들을 같이 놓는 것이 無難한 方法이겠읍니다.

다음은 房안의 악세사리等에 對하여 生覺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그 모든 家具들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주기 爲한 裝飾品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고 複雜한 것은 避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꼭 제자리를 지켜야할 物件들을 요령있게 얹어 놓아야 效果를 얻을수 있지 너무 많은 物件들을 羅列해 놓는 것은 禁物입니다. 아무리 좋은 物件이라도 너무 많으면 머리가 아프고 精神이 統一되지 못합니다.

群鷄一鶴格으로 산뜻하게 나타내는 몇 가지 物件들을 제자리에 놓아두면 지루하지도 않고 房全體의 분위기를 그것으로 完全히 살려줄 수가 있으니가요.

勿論 이런것들도 다른 家具들과 마찬가지로 型態나 色彩를 留意 하시는 것은 當然한 問題입니다.

다음은 位置를 季節에 따라 可能한데로 이리 저리 바꾸어 놓는 것도 좋은 案이겠읍니다. 지루한 雰圍氣를 가끔 바꾸어 보십시오. 같은 家具라도 位置關係에 따라 훨씬 다른 感覺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의 構成입니다.

倦怠롭고 慢性이된 生活을 조그마한 神經으로 새로운 氣分으로 轉換해 보십시오 이상 이야기한 몇가지 基本이 될 수 있는 問題를 充分히 理解하게 된다면 쉽사리 個人의 境遇에 따라 얼마든지 아름답고 알뜰하게 꾸밀수 있겠읍니다.

다음은 個人 生活과 美術에 對하여 生覺해 보겠읍니다. 個人 生活과 美術에 對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立場이 있습니다.

첫째. 美術品을 制作하는 側

둘째. 美術品을 鑑賞하는 側

① 美術品을 製作한다는 것은 自己의 美的 感動에 따라 이것을 表現에 까지 올리어 具體的으로 形成하는 것이며 製作함으로서 事物이나 自己의 認識을 明確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表現 한다는 것은 自覺을 徹底히 하는 것이며 自己의 人間形成의 手段이기도 합니다.

② 鑑賞하는 立場에서는 他人이 表現한 造型品을 通하여 作者 固有의 精神狀態나 人生觀 世界觀을 알며 自己가 가지고 있는 能力에 따라 共感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이고 간에 造形的인 生活을 通하여 얻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生活을 豊富한 것으로 擴充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個人의 集團이라는 社會에는 自然히 美術的인 高踏的인 調和가 期待되는 것이 겠지요.

美術은 우리들의 生活과 別個의 것이 아니고 곧 우리들의 生活 그自體가 美術이어야 되겠습니다. 이 美術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生活을 豊足하게 明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어느 쪽이고 우리들은 鑑賞할뿐만 아니라 創作的인 生活을 우리들의 生活에서 적게나마 해보는 가운데 더욱 意義있고 보람있는 美的 生活을 꿈 꿀수 있고 現實化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間或 나는 아름다움을 느끼면서도 너무나 美術에 對하여 모른다고 하는 분이 許多합니다만 이것은 큰 誤算인 것입니다. 곧 우리들의 生活自體가 美術인 바에야 그

것을 좀 더 有心히 觀察하고 理解하려고 한다면 專門的인 美術品도 다 같은 原理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운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나의 生活에 가져오려고 하는 그自體가 벌써 美術을 理解하는 마음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生活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問題가 아닙니다.

이러한 簡單한 問題만 解決된다면 우리들의 生活은 끝없이 아름다워만 집니다. 住生活, 食生活, 衣生活이 全部가 共通된 原理에서 아름다워 질 수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첫째 美術을 理解하는 마음이 가장 重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直接的인 問題로 우리들의 住生活에 必要한 室內裝飾 其他 조금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天井과 壁과 家具들의 色探調和等은 天井을 밝게 壁은 中明度로 하고 家具들은 이것 보다 좀 어두운 色으로 하면 대강 無難합니다. 그리고 一般的으로 男性의 房은 冷色調 女性의 房은 溫色調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綠, 靑은 男性, 紅, 橙 분홍 같은 色들은 女性, 이리케 定하시고 그中間色에다 大膽하게 白과 黑을 악센트로 넣어준다든지 엷은 푸른色을 연하게 調和시키면 좋겠습니다.

食事用的 내프킨은 꼭 白色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또한 테-볼크로스도 꼭 白色이래야 좋다는 法은 없습니다.

單色이면 房의 色調에 調和되는 色相을

使用하십시오. 이에 대하여 내프킨은服飾에 引用하여 生覺한다면 一種의 악세사리이기 때문에 악센트의 役割이 된다고 生覺하시면 틀림 없습니다.

洋室의 쿠손과 韓室의 방석은 對照的인 面으로 보면 同一目的인 것입니다. 그러나 쿠손은 椅子에 對한 콘트라스트이고 室內裝品으로도 重要的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趣味上으로 보아도 쿠손은 刺繡 애 프리개 걸팅 其他 手藝品으로서의 對照物입니다. 또한 色調가 가장 重要視되어야 되겠지요.

방석에 對하여서도 깔개 溫突紙 壁色 卓子色들에 對하여서도 考慮할 問題입니다. 木綿類 비단等 或은 特殊 韓國的인 生産品들 無地 紋樣이 있는것 等 各各 趣味에 따라 마음대로 마추십시오.

食器에 對하여서도 朝 晝 夕 세번의 食事に 언제나 쓰여지는 것이기에 色, 形 또는 紋樣들에 따라 生活에 潤氣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中 色調가 가져오는 큰 役割은 얼마나 큰 影響을 우리 食生活에 가져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白磁나 靑磁같은 것은 勿論, 釉藥을 使用한 여러 그릇等 感覺美는 이루 말할 수 없을 程度의 特殊한 感覺입니다.

우리나라 食器는 色뿐이 아니라 型態도 極 아름답고 種類도 여러가지 입니다. 이런 것들을 選擇하는 美眼識은 우리 生活에 꼭 必要하다고 보겠습니다.

食生活을 더욱 로맨틱 하게 하자면 아침 食事は 靑은 꿈같은 靑色系로 食器를 調和시키고 點心 때는 크림 色이나 레몬 옐로 같은 色으로 또 저녁은 핑크系로 맞춰 興奮된 色調로 一家團樂하게 食事하는 風景을 想像만 해보아도 그 얼마나 멋이 있을까요.

生活의 近代의 色調라고나 할까 明朗한 色調의 食器를 選擇하는 것은 極 滋味있는 結果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때 紋樣이 있는 것은 一切 使用하지 말고 色이 아름다운 無地가 靑靑 近代의 인 感覺을 불러일으킵니다. 좀 奢侈스러운것 같지만 역시 食器는 高級品을 使用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이야기하면 限없는 것이겠지만 우리들의 生活을 美化한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조고마한 物件에 까지도 疎忽히 하지마십시오.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의 生活은 次次 아름답게 지며 明朗해 지는 열쇠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한 가정학회지 제4호 발간



生産 泰 일 상 사
直 賣

신신 연쇄가 116호

家事器具 專門 取扱

代表 양 승 제

Tel. (73) 6946